

KT 폐기 서버 로그기록 확인... 해킹의혹 새 단서

전수조사서 뒤늦게 발견
“침해의혹 없다”며 서버 종료
“위험성 알고도 종료” 지적도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에 난항이 예상됐던 가운데 보존된 로그가 의혹 규명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종근 의원이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민간 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KT는 앞서 5월22일부터 이날 5일까지 외부 보안업체를 통해 자사 서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서버 로그 역시 백업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밀한 KT와 LG유플러스를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원격상당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KT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의 ‘kt.com.kr’ 웹사이트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의혹을 보도했고 과기정통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KT는 13일 과기정통부에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

를 발송했고, 동시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음) 고령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빨리 서비스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자료 폐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군포·구로 지역은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프랙 보고서에서 지적된 해킹 가능성과 서버 폐기 시점, 소액결제 사건 간의 연관성이 제기돼 왔다.
KT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7월 조사 시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하지 못했다”면서 “사내 조직인 정보보안실 요청에 따라 8월 한달 기준 구축형 서버와 신규 구축형 서버의 병행 운영 기간을 단축해 8월1일 기준 구축형 서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위험성을 알고 서버 종료 조치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 관계자는 “모든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소진 기자 zin@siminilbo.co.kr

미성년자 성착취물 인터넷 생중계 BJ 7명 입건... 시청자 280명 수사

‘벌칙수행’ 부적절 신세 접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간 방송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공범 7명을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전 사부경찰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의 20대 A씨 등 인터넷 방송인(BJ)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행위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BJ들이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담겨있었다.
한편=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는 약 280여명에 달했으며, 일부는 BJ들의 계좌로 최소 1만에서 최대 1만 원까지 후원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방송을 주도한 30대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방송에 참여한 A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실상 C씨와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후원금을 보낸 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자 280여명이 돈을 입금한 행위 자체도 범죄를 강요한 것이라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용인 보복살인’ 30대 기소 신고 양심 품고 계획적 범행

지인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형사규 부장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포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경찰에 “A씨로부터 밤과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고, A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임종민 기자 lim@siminilbo.co.kr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된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이누리아카데미에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출생 이후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는 이날부터 무료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출생)와 임신부는 오는 29일부터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 나이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예방접종은 오는 10월1일부터 연례대별로 차례로 시작된다.
/연남뉴스

길거리서 필로폰 투약 후 파당 시민 신고로 30대 붙잡혀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길가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나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광주=정한비 기자 jcrso@siminilbo.co.kr

‘초등생 살인’ 명재완 사형 구형... 檢 “반성 기미 안보여”

흥기 사전 구인등 치밀한 계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경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

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재미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빙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 는 법률상 임의적 감정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인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김하늘을 만나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하늘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피곤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지에 대한 후회, 직장 부작을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

했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한호 기자 mmh@siminilbo.co.kr

무릎 꿇은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너무 죄송” 추모공간 찾아 사죄
유족들 국회 내뽐개치며 격분

갯벌 고갈지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장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와 사죄했다.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는 22일 오전 추모 행사가 열린 인천시 용진군 영종도 하교래 정장대에서 유족들에게 “이제 석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재석이기를 끝

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예고 없이 현장에 온 A 경위는 국화꽃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사죄했다. 반면 유족들은 A 경위에 국화꽃을 그의 얼굴을 향해 내뽐개치고 격분했다.
A 경위는 “사건 관련 드문 영상, 사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다 남아있다(사실이) 왜곡될 수 없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문제점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희망을 선순환합니다

善

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캠페인
→ 만원릴레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fund.inu.ac.kr
☎ 032-835-8080

